



กรมและศึกษาคุณงานด้านพลังงาน ตามโครงการสร้างจิตสำนึกการ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ทุกภาคส่วน
ภายใต้โครงการพัฒนาจังหวัดเชียงใหม่ ประจำปีงบประมาณ ๒๕๕๘

วันที่ 7-9 เดือน 2

การเรียนรู้เพื่ออนุรักษ์พลังงานและสิ่งแวดล้อม โดย เอ็ม.ซี.เอส. เอ็ม.ซี.เอส. เอ็ม.ซี.เอส. เอ็ม.ซี.เอส. เอ็ม.ซี.เอส.



태국팀 4월 보고서

목차

태극팀의 집은 어디인가?

에너지교육 캠프 즐기기

송크란을 즐겨라

치앙라이 YMCA 활동

태국팀의 집을 소개합니다





1층 공간을 소개합니다





여자방을 소개합니다





방객방을 소개합니다





이곳 러브커피는

산캄페็งYMCA에서 운영하는 카페로서,

초창기 우리의 수다방이었으나,

바리스타가 호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라운아피는 하루에 2잔까지

무릎이용 가능!



리브커피 내부 전경



주방



화장실



주거 공간



체육관

소소한
일탈





สำนักงานพลังงานจังหวัดเชียงใหม่
กระทรวงพลังงาน



에너지 캠프



사오힌 YMCA 에너지캠프란?

치앙마이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에너지교육 캠프로서
각 학교에서 학생 2명 선생님 1명
대략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가.

에너지 활용에 대한 교육이 주로 진행
되었으리라 이후에
다양한 활동 등을 진행.

에너지
교육



교육 후
작지사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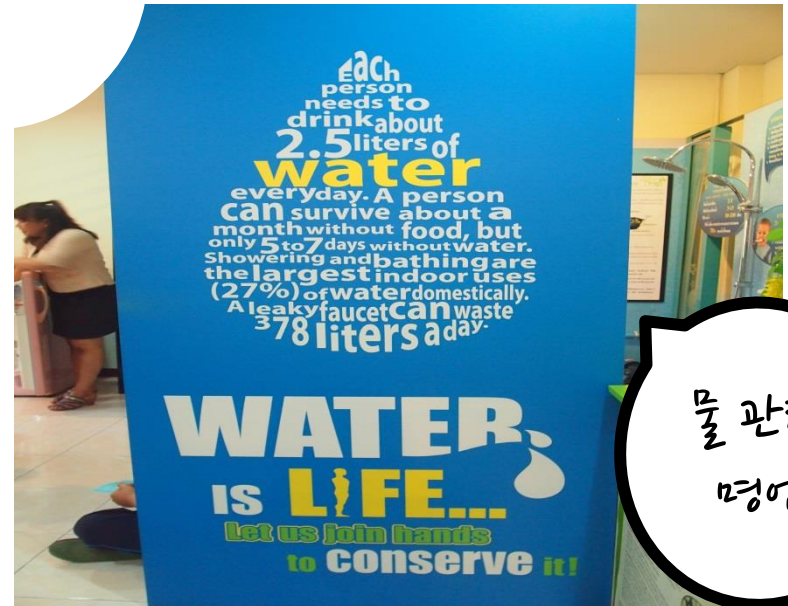


캠프 사진

체험
교육



물 관련
명언





라운아피가 한 활동은?

에너지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게임을 진행하였다.

팀 빌딩 게임으로는

다소 **힘난**했던 신문지 접기 게임과

인간사슬 게임을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조금 더 **끈끈**해졌으며

진정한 팀으로 거듭났다는

평문이 들린다.

신문지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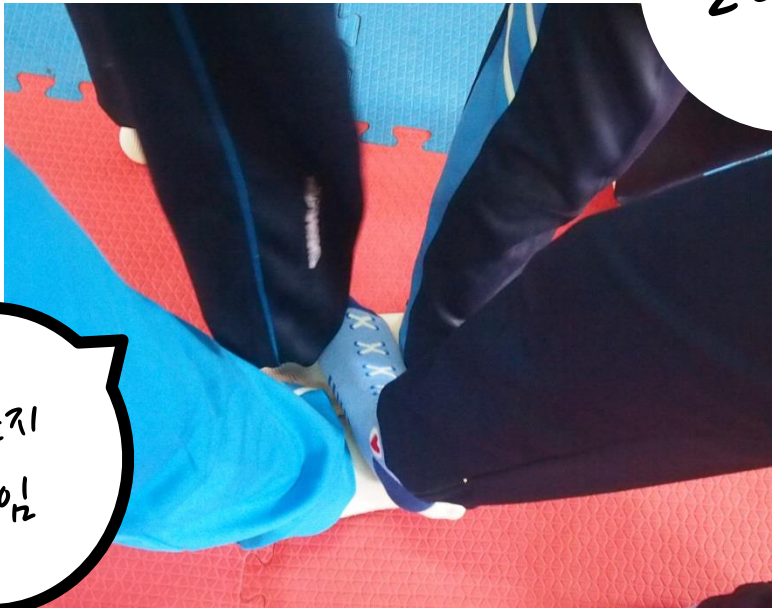


인간사슬



활동 사진

신문지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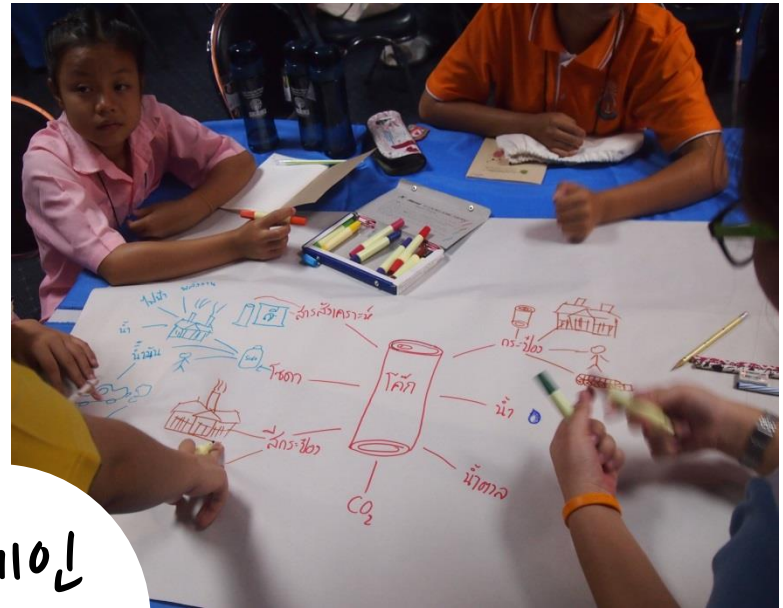
인간사슬





에너지캠드 브레인스토밍
아이들이 실제로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드는지를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며
얼마나 토론을 펼친 활동



브러쉬
스튜디오





송크란이란?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축제로, 불력으로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며 서로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깨끗

하게 새해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물을 뿌리는 놀이가 축제로 정착된 것이다.

특히 치앙마이는 송크란의 시초가 된 지역이라 태국팀은 3일간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산캄페็ง
송크란



람푼
송크란



송크란

치앙마이
송크란



람푼
송크란





송크란의 여독을 채 풀기도 전에

우리는 치앙라이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치앙라이는 태국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이고 원래 있는 산캄펑에서는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치앙라이에서 우리가 하게 된 주된 활동

은 CLP프로젝트 보조역할이었다.



normal lip



normal palate



cleft palate



left unilateral cleft lip



left cleft lip



left unilateral cleft lip and palate



bilateral cleft lip and palate



bilateral cleft lip



bilateral cleft lip with full palate

CLP란?

cleft lip & palate의 약자이고
한국어로는 '구순구개열'이라고 불리는
장애를 뜻한다.

얼굴에서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의 하나로,
얼굴이 만들어지는 임신 4~7주
사이에 입술과 입천장을 만드는
조직이 적절히 분지 못해서
생기는 입술, 입천장의 결핍증이다.



CLP 환자는 1000명당

한 명 꼴로 나타나며 한국에서는 사후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큰 문제가 없지만, 아직 태국이나 동남아 지역은 많은 아동들에게서 이 질환이 발생되고 있고, 비용과 후처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이에 치앙라이는 태국아동을 포함해서 근처의 미얀마, 라오스까지 영역을 확장해 환아들을 수술까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아동이 성장하고 청소년으로 이를 때 까지 케어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준다.



가장 먼저,

우리는 CLP환아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이 아동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수술이
완화된 친구들이고, 치앙라이Y에서는

이 아이들의 지속적인 케어를 해주기 위해

간간히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들의 상태를 체크하였다.

총 6명의 아이들을 만났고

치앙라이 병원근처 시내에 사는

아이부터, 산을 굽이굽이 타고 올라가서

어렵게 만난 아동들까지

여러 아동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다음주에 있게 될 패밀리캠프에

참여 할 것인지 여부도 물어볼 수 있었다.



가정 방문





치앙라이 YMCA는

매년 CLP환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패밀리캠프를 개최한다.

부모님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의사분들께서 강의를 해주고,

아동들은 언어활동에 어려움이 없는지,

수술 후에 다른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체크받기도 한다.

이번 패밀리 캠프에서

라운애피의 주된 활동은

CLP환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류

및 다양한 놀이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것이었다.



라운아띠가 함께한 활동은?

총 3개의 활동을 준비하였으며
아이들은 시간 별로 각각의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활동에 참여.

1번 방 (주현 & 건희)

한국의 전통놀이인 딱지를
태국에 전파함으로써 태국아이들과
진득한 문화교류를 시도

2번 방 (다정 & 피비빈)

아이들과 함께 입체 가면 만들기
먹을 수 있는 밀가루로 만드는
클레이 점토 클래스 진행.

3번 방 (지원 & 피메우)

손가락을 이용한 물감놀이
점미술로 만드는 행운목걸이 클래스



이번 방





2번 방





3rd class





마지막 날은 모든 아이들과 함께

치앙라이 워킹스트리트(야시장)에서

CLP활동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진행 하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물놀이를 하면서 홍보를 하면

모금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산캄펏에 있는 악기와 옷들을

가져볼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모금활동 당일

사물놀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게다가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몰려오고 거의 10분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야시장 상인들까지 모두 장사를 접는

상황이 발생한다.

30분만에 모금활동 철수!

치앙라이 강당에서 아이들 앞에서

공연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사물놀이가 아니었다.

눈치게임이었다 라는 등 대전이래로

가장 망한 공연이었다며 오랜만에 짝은 악기에

긴장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평가들이 나왔다.



펀드
레이징





타운센터는?

치앙라이에 위치한 아동들을 위한

레인지 스쿨이 열리는 곳이다.

그리고 영유아들을 위한 유치원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다.

활동1 - 도색 작업

활동2 - 코리안 클래스 (딱지교실)

활동3 - 한국음식 나누기 (화채&파전)

활동4 - 치앙라이 투어

활동5 - 참고정리

Before



After



유치원을 둘러싼 흰 벽을
모두 칠하는 활동 및 색이 바뀐
책상들을 다시 도색하는
작업을 진행

창들까지 모르고 색칠한게
맘에 걸렸다는 이야기

함부로 배울수 없는
테크닉을 장인에게 배운것 같다는 이야기

마지막에 간식을 주셔서 좋았다는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활동



도색
작업





코리아클래스 (딱지교실)

한국에서 하는 즐거운 놀이 중에서
무엇을 가르쳐 줄까? 하다가
바람개비, 개구리잡기 등이 나왔고
결국 **아이들이 직접 만들수 있고**
계속 가지고 다니며 게임도 할수 있는
딱지놀이가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
아이들이 즐겁게 가지고 놀았고
수업이 끝나고도
마당에서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꼈던 활동



팍지
교실





파전 & 화채

아이들을 위해 어떤 한국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생각 하다가 나온 **파전 & 화채**
치앙라이의 스텝들과 함께 근처 시장에서
파전을 위한 재료를 샀다.
하지만 **부침가루가 없어**, 대신 밀가루로
파전을 만들게 되었다.

다소 암담한 결과가 나왔지만
아이들은 잘 먹어주어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화채!
화채 또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정신 없이
만들어내기에 낭비였지만,
두번이나 먹기를 원하는 아이까지 있어서
만족감을 느꼈던 활동 이었다!



파전





화채





창고정리

분명 클라스룸이라 하였다. 분명..

그 전날까지의 상상은
아이들이 쓰는 책장이나 교실을
대청소 하는 것이었다.

도착해서 스텝을
따라간 방은 그야말로 **충체적 난국.**

그곳은 **무려 30년**이나
청소를 하지 않은 곳으로서

라운아피에게는
아마도 최초의 청소였을 듯하다.

다들 할말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활동



창고청소



4월의 김이다경

치앙라이에 위치한 매싸이라는 지역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이다. 매싸이는 미얀마와 맞닿은 곳.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도 여권사본만 있으면 간단하게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로 입국이 가능한 곳이다. 그곳에는 많은 미얀마인들이 산다. 장사도 하고 가정을 꾸리기도하고 .. 그래서 간판이나 건물에 미얀마어가 많이 쓰여있기도 하고 길가다 보면 타나카를 바른 미얀마 꼬마들도 종종 보이기도 한다. 물론 라오스인들, 그리고 화교들도 많이 산다고 한다. 강물(종아리까지밖에 안 오는 것으로 보임)밖에 안 오는 낮은 강하나 건너면 다른 국가. 여기서 고민해본 것은 국경과 국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국경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눌 수 있고 더 넘어서서 인종도 가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나는 그냥 한국 국경 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라오스에서 자랐다면 나는 라오스인인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미얀마사람이라면 나는 미얀마사람인가? 단지 내가 태국의 문화가 좋아서 이곳을 나의 정체성의 시발로 둔다고 하고 싶으면 나는 태국인이 될 수 있는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면 나는 중국인?

더 넘어서서 아시아인은 누구를 더러 아시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아시아적 감수성을 가지고 아시아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면 아시아인? 피부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상관없이 이곳에서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아시아인? 그런 논제를 모두 초월한 나의 궁금증은 국경이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위해 성립되고 존립되고 있는가? 인종을 인간이 임의로 나눌 수가 있는가?

음.. 쓸데없는 생각일수록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궁금하게 만든다. 국가야말로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성립된 새로운 존립조건 아닌가. 그 말은 즉 국가를 통해서 국민을 나눈다는 개념은 옳지 않다는 거고, ..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저는 아시아에서 왔어요 라고는 하지 않는데.. 국가가 국민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조건인가? 생각을 해도 사이다같은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의문거리에 대해서 발제가 있으신 분은 메일을 주셨으면 좋겠다(kindda@naver.com).

4월의 김지원

정말 4월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훌쩍 지나갔다.

DAY OFF 때 실컷 놀기도 하고 그 유명한 송크란 때 물벼락도 맞고 한 달 반 동안 살았던 HOME을 2주 동안 떠나있기도 했다. 4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주 동안 지냈던 치앙라이에서의 생활이다. 태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치앙라이에서의 2주는 home이었던 산캄펑을 떠나 새로운 스텝들과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 곳은 산캄펑과는 또 다른 인상을 나에게 심어주었다. 태국의 북부 지방을 좀 더 느끼게 해 주었다고나 할까? 치앙라이가 최북단인 만큼 우리는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국경을 넘나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태국과 미얀마 사람들은 정말 동네에 장을 보러 나가듯이 쉽게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 만큼 태국의 국경 마을은 태국과 미얀마의 두 모습을 다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나에게 국경지대는 처음 접해보는 지역이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비자가 없는 우리들은 다리를 건널 수는 없었지만, 다리 끝에서 바로 코 앞에 펼쳐진 미얀마 땅을 조용히 지켜볼 수 있었다. 잠시 '미얀마 팀원들을 잘 지내고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돌아오고 나서도 무언가 마음에 잔잔히 남는 곳이었다. CLP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더 태국에 대해 그리고 치앙라이와 국경지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어찌면 여기서는 하나하나씩 나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 치앙라이가 크고 무겁게 다가온 일들이어서 4월은 나에게 훨씬 더 빨리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다. 그 만큼 남은 3개월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릴 건가. 아직 혼자 고민과 생각만 쌓여 가는데 이제는 벌써 HOME을 떠나 마을로 들어갈 때가 다 되었다. 마을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은 설렘 반 걱정 반이다. 새로운 환경과 가족들에게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이 없던 나에게 점점 더 고민을 하게 해주는 일들이다. 그래도 아직은 기대가 조금 더 큰 마음일까? 어찌면 다시는 없을 이런 날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걱정도 된다. 4월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들을 한 만큼 앞으로의 3개월도 새로이 배우고 경험하려고 해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감사하게 잘 써야지. 그리고 나에게, 모두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생각해야겠다. 남은 날들을 살아내지 말고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아프지 말고 더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고 돌아갈 수 있기를.

4월의 김주현

벌써 태국에서 생활한지가 2개월째가 다되간다.

태국에 온 이후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특히 이번달은 사람, 먼저 다가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운것 같다.

사실 나는 항상 생각만 많지, 그 생각을 행동으로는 잘 옮기지 못한다. 정말 생각하는 것의 반에 반도.. 치앙라이 캠프에서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알았다. 이야기는 많이 안해봤지만, 간간히 인사를 주고 받던 선교 자원봉사온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도 하고, 생일축하(그 기간중 생일자가 한명 있었다.) 노래도 불러주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했지만 결국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온 그분들 덕분에 서로의 이름을 알수 있었고, 생일축하 노래도 불러 줄수 있었고, 서로의 이야기도 할수 있었다.

그렇게 그때 알게된 사람들이 레이철, 아만다, 이린, 레이먼드. 그리고 들었지만 잘 까먹는 나의 기억력 때문에, 수첩에 이름을 쓰고 몇번이나 들여다 봤다. 이것 보면 작은 거라도 메모하는게 점점 습관이 되가고 있는거 같다.

이제는 정말 반 정도가 지났고, 나머지 절반이 남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남은 기간동안에는

내가 지금 느끼고 배웠던것 들을 가지고, 좀더 내 주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한발짝 다가가 봐야겠다.

이제 다음달이면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더 더더 쑥쑥 해야겠다!! 아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 2016년에는 어버이날 확실히 챙겨드리겠습니다 하하 ♥

4월의 정전회

4월은 체감상 굉장히 빨리 흘러갔다. 치앙라이 2주를 제외하곤. 쏘크란 같은 축제는 난생 처음이었다. 적어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전국적인 축제가 없으니 말이다.

게다가 길을 지나가는 초면인 사람에게 바가지로 물을 끼얹는다니. 한국 정서로는 놀라운 일이었다. 현지인들 못지 않게 외국인들도 활발히 참여하는 축제였다. 언뜻 외국인들의 축제같기도 보였다.

쏘크란 페스티벌은 신비로운 축제이지만 한 편으론 물부족 국가에서 3일 내내 길거리에 물을 쏟아 붓는 데에는 조금 의아했다. 그렇지만 쏘크란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축제였고, 3일 내내 나도 마을사람들도 얼굴의 웃음을 잃지 않았다. 기억에 오래 남을 축제였으며 기회가 된다면 친구나 가족들과 쏘크란 페스티벌에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다. 이번 4월은 팀반성의 기간이었던 것 같다.

근 한달을 미뤘었던 팀회의에 대해 전직 라온아띠 간사였던 '이아나' 씨(?)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반에 회의가 너무 형식적이고 사무국에 제출하는 자료의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나왔다.

그런 이유로 하루 이틀 팀회의를 하지 않았고, 그게 하나의 변명거리로 작용하여 근 1달 동안 회의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린 많은 것들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딱 한 번 팀원 전체가 둘러앉아 진솔한 나눔을 진행하는 시간. 회의의 부재로 우린 서로 불편한 말은 하지 않게 되었다.

웃고 떠들고 즐거운 이야기만 오갔다. 그렇게 서로 마음속에 쌓인 불편함 감정들은 1달이란 시간 동안 끓아버렸다.

이 시점에서 우린 끓아버린 이야기를 하자니 너무나 커져버린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이 두 가지의 선택사항 중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아나' 전 간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팀회의를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으며 회의의 내용 또한 전처럼 형식적이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팀일기'는 아직 미미한 시작이지만 조금씩 자신의 감정과 하루 동안의 느낀점을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고 있다.

난 대전에서처럼 왕창 깨지고 다시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팀원들의 작은 자극들을 통해 조금씩 부서지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사실 아직까지 팀이란 게 뭔지, 공동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고 어렵게만 다가온다. 이 의미들을 태국에서 스스로 적립해나갈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팀원들과의 더 많은 소통을 필요로 하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은 역시 힘들다.

태국팀 특성상 남은 2주를 제외하곤 앞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의 가족들과 생활을 하게 된다.

때문에 앞으로의 2주는 우리가 뭉치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